朝鮮王朝實錄抄 滿蒙史料

滿蒙史의 硏究는 우리 文化와의 연계성과 함께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모두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면의 硏究를 뒷받침하여 줄 史料의 발굴이 극히 적은 범위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 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滿蒙史硏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史料는 물론 『明實錄』과 『朝鮮王朝實錄』을 빼 놓을 수 없다. 이 두 資料는 이 지역은 물론 이 지역과 韓國 및 中國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朝鮮王朝實錄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어느 자료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나 滿蒙史硏究를 위하여 방대한 量의 朝鮮王朝實錄을 섭렵한다는 것은 硏究者에게 과중한 努力과 時間의 낭비를 가져 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 硏究者에게 보다 더 좋은 硏究業績을 기하기 위하여는 史料集의 정리 출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비록 朝鮮王朝實錄抄 中國史料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호 보완하여 주는 바가 있어 本社에서는 이를 中國史料와 함께 影印출판, 硏究者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一九八二年 三 月

凡例

一、本書는 景印 太白山史庫本 李朝實錄에서 明代의 만주와 몽고에 관한 記錄을 抄錄 編纂한 것이다。

一、明代의 만주、몽고에 관한 同實錄의 기사를 광범위하게 거의 빠짐없이 이를 거두었다。다만、몽고 및 몽고민족에 관한 기사는 아주 적으므로 특별히 編은 가르지 아니하였다。

一、明代의 만주와 그 주변에 있어서의 만주민족의 활동事蹟 社會習俗 등을 전하는 기사는 이것을 網羅하고、여기에 李朝와 明朝의 女眞민족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상의 시책과 시설을 전하는 기사와 아울러 遼東과 조선과의 交涉에 관한 상항을 관련시켰다。그리하여 이런 사항중 오로지 朝鮮 자체에 관한 것은 특히 머리에 「參」자를 붙여 참고로 하는 뜻을 표시하고、또 활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만주 본위의 기사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다。

一、索引 一卷을 人名、地名을 찾아보기에 편리케 하였다。

一、원본에는 異字、俗字가 매우 많으며 字體 또한 한둘이 아닌데 그것은 오로지 인쇄 제작할 때에 新舊의 字를 섞어서 쓴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상식적으로 처리하였다。

가、俗字、異字의 대부분은 正字로 고치었다。그러나、너너 원본대로 따른 것도 있다。

나、正俗 二體 이상을 아울려 쓴 것은 원칙적으로 正字로 통일 一貫하였다。潛·濳·濬·潛을 潛으로 통일한 따위다。그러나 원본의 舊를 보존한 것도 있다。

다、俗字·異字로써 一貫한 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답습하였다。贅欵 따위。그러나、예외도 있다。

一、원본에서 틀림없이 誤字·脫字·衍字·倒錯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대로 답습해 쓰고 곁에 그 교정 정오를 베꺼었다。다만、그것을 의문체로 다룬 것은 편자의 신중과 겸양에서、독단으로 여겨지기를 피하고 싶어서 이다。그리고、부주의로 인한 誤植인지、의식적으로 한 慣用(音通을 포함) 인지 당장 결정하기 곤란한 것에는 (ママ)을 붙였다。

一、記事에 관계되는 干支(日次)를 揭出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가지 구별을 두어 원본의 체재를 바르게 하도록 힘썼다。

가、○干支(本文)

이것은 원본 그대로이다。즉、원본에서 記事 머리에 干支를 揭出한 경우이다。

나、干支○〔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기사 머리에 간지를 揭出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관계 간지가 분명할 경우이다。즉、先行되는 기사의 머리에 揭出한 干支와 後續되는 기사의 干支 사이에 日次의 간극이 없을 때에는、이 干支들 사이에 실린 기사는 모두 先行의 干支에 결린 것으로 생각하여 무방하다。

다、干支先行——干支後續○〔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가사 머리에 干支를 揭出하지 않고、또 관계되어야 할 干支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즉、先行干支와 後續干支 사이에 日次의 간극이 있을 때는 이 干支를 사이에 수록된

기사에 관계되는 干支는 일단 의문시함을 愼重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특히 「나」와 구별하여 원본의 체재를 보존하였다.

라, 그리고, 같은 干支에 관계되는 둘 이상의 기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干支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단 만, 「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다음기사에 만 같은 干支를 揭出하여 干支()(本文)으로 하였다.

一九八二年三月

景仁文化社

目次

世宗實錄

世宗零年(永樂十六年)……三
世宗元年(永樂十七年)……一〇
世宗二年(永樂十八年)……二三
世宗三年(永樂十九年)……二五
世宗四年(永樂二十年)……四二
世宗五年(永樂二十一年)……五九
世宗六年(永樂二十二年)……九六
世宗七年(洪熙元年)……一四一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世宗八年(宣德元年)……一六四
世宗九年(宣德二年)……一八九
世宗十年(宣德三年)……二一九
世宗十一年(宣德四年)……二四二
世宗十二年(宣德五年)……二五六
世宗十三年(宣德六年)……二六八
世宗十四年(宣德七年)……三一三
世宗十五年(宣德八年)……三六四

世宗莊憲大王實錄 上

世宗實錄　卷一

零年八月

〔參〕癸巳○贊成事朴信詣上王殿問安上王曰主上今在本宮未得數見是可恨也卿須督役使主上速還昌德宮又謂知申事河演曰予前日詣健元陵路見禾穀不實當有飢饉之憂京畿之民則京城所儲可以賑之全羅慶尙忠淸三道稍有蓄積亦可以救咸吉道地連敵境且復置慶源新徙人民尤可慮也其令政府六曹議救之之策

〔參〕己亥○咸吉道慶源兵馬節制使曹備衡啓今先運新徙民四百戶內時到者但百八十戶而已歲戊寅修孔州城置慶源府徙道內富民以實之其後再經兵亂流移四散今復置府已令各官刷還而各官托以不付籍不卽刷還然其產業基址尙在分辨不難乞勿論付籍與否悉令刷還且元居人民其父母妻孥盡爲賊所殺擄而移居賊衙龍城之地累年戍禦

本府復立之後又先徙居可尙乞賞以添設檢校之職以慰其心上令兵曹擬議兵曹啓募道內無產業者徙之復三年徭役除其租稅刷還流移人民卽依所啓爲便從之

乙巳〇平安道觀察使馳啓吾郎哈四十餘人寇閭延郡擄男婦十名以歸知郡事朴自儉追之盡奪而還

零年九月

甲寅〇平安道兵馬都節制使馳報野人四十餘掠閭延郡居民男女七十人牛八首以歸知郡事朴自儉領兵追之盡奪所掠而還卽發江界理山熙川等州軍馬三百五十以備之上王命臨機應變以嚴備禦陞授自儉通訓大夫以賞之令觀察使勞軍士

丁卯〇大明浙江人陳宗等男婦六人自倭山逃來遣判司譯院事張洪守送于遼東

零年十月

戊戌〇初帝遣指揮伯顏不花千戶李敏等率軍官五十四人捕海青土豹於三撒地面自閻延郡小甫里口子乘桴渡江遣宣存義及朴楣慰而詗之至是又遣判事鄭喬賜毛冠又命從其所向支應護送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世宗實錄　卷二

零年十一月

己酉○初野人月郎介毛郎介殷阿兒古大等來居慶源等地至是帝遣指揮安禿奉勅招諭野人安禿遣人曰月郎介等本是野人可發還本地上王令政府六曹議之皆請發還上王從之

〔參〕庚戌○上王曰金銀不產我國貢獻實難繼也欲以馬匹及布子代獻如何鄭易對曰宜代以鷹子上王笑曰卿之言不然因曰帝必允俞將遣使奏請

乙丑○上護軍朴楣自咸吉道還啓曰猛哥帖木兒既徙他處宜於阿木河置鎭與鏡源鏡城鼎峙令兵馬都節制使置營鏡城上王曰此策似可當與大臣議之

〔參〕丙寅○〔上略〕以成達生爲咸吉道兵馬都節制使兼判吉州牧事〔中略〕尹夏慶源兵馬使

丁卯○漢人彭善才等男婦十三人自日本逃來上厚慰之遣僉知司譯院事趙忠佐解送遼東

甲戌○咸吉道觀察使啓指揮伯顏不花等欲上京拜謝上令政府六曹議咸曰宜遣人諭曰所賫勅書全指野人頭目而不干我國今越境相通已爲不可況於上京乎上卽遣通事崔雲賫酒往慰仍諭以此意

零年十二月

庚辰○遣譯者全義率軍十人往連山站待沈溫枷紐管來毋過連山溫若與使臣偕來托以母病引出拿來

辛巳○元閔生啓曰全義率軍至連山則把截官必拘留報都司上

王命朴訔李原趙末生議訔等亦曰宜令義與李勗追尋至八站而還不可到連山義至廣灘路上遇溫奴乃還

〔參〕壬午○〔上略〕以尹坤爲平安道都觀察使尹子當平安道兵馬都節制使曹備衡咸吉道兵馬都節制使〔下略〕

己丑○咸吉道觀察使報亏知介船三十二隻來泊慶源堀浦乞粮命給之

乙未○漢人兪興梁泰自倭山逃來遣司譯院注簿仇敬夫押解于遼東

辛丑○溫之赴京也李迹爲副使謂平安道觀察使權軫曰本房之行非他宰相比須定差使員護送遼東軫遣鐵山守金孟敬護送至是事發義禁府請拿軫來鞫上王曰於其時溫罪未發軫爲王妃之父定差使員護送有何罪乎其置之後軫期滿當遞上王謂主上曰

當以軫爲戶曹判書〔下略〕

乙巳〇被虜漢人李阿謹等五人自倭山逃來遣人解送遼東

世宗實錄　卷三

元年正月

丁未〇杖任龜年七十配長城縣客舍廳直龜年前爲義州牧使私以沈溫伴人充遼東護送軍故也

庚戌〇吾都里指揮李好心波吾郎哈指揮謝伊帖木兒骨看亏知哈指揮豆稱哈嫌進亏知哈指揮亘兒帖哈東良北吾都里李都兒赤等來朝獻土物

丁巳〇義禁府提調卞季良等請朴信到遼東聞趙忠佐漏泄幾(機カ)事不卽首告之罪上王曰今有大功勿論

〔參〕戊午〇慶尙道觀察使報倭賊所擄逃回漢人金得觀等二名到晉陽言倭賊造戰艦要於三月作耗中國沿海之地上王命驛召得觀等

〔參〕庚申○禮曹判書許稠啓金得觀供狀已到宜先報遼東轉奏預防若不先報令得觀入奏而倭寇或先作耗則似爲不可上然之朴信曰得觀若還則朝廷必知我國與倭島地近交通不如留之上王召左議政朴訔議之訔曰先報供狀不可留得觀亦不可當以急傳遣得觀入奏從之

庚申○骨看亏知哈指揮照非兀良哈千戶者安帖木兒等來獻土物

丙寅○上王欲邀使臣於壽康宮〔中略〕上王語使臣曰倭島近於國境如在淮安望沙門島或來侵掠或乞粮買賣又曰伯顏不花李敏等說稱打捕海青土豹賫勅來止咸吉道儼曰伯顏不花等事殿下須奏聞吾亦奏達矣〔下略〕

己巳○遣司譯院注簿趙翕押金得觀馳赴遼東又有漢人彭亞瑾等一十六名自倭島節次逃回遣司譯院判官吳義押解遼東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www.ertongbook.com